敬源錄

平昌李氏敬源錄

☆※※ 目 錄 ※※☆

一. 序 文 …………………………… 一
一. 平昌李氏本源先系錄 …………………………… 五
一. 前文註解 (앞글해석) …………………………… 十一
一. 平昌李氏의發源 …………………………… 十九
一. 八世孫 匡 (광) …………………………… 二十一
一. 九世孫 仲仁 (중인) …………………………… 二十一
一. 十一世孫 堅 (견) …………………………… 二十三
一. 十三世孫 稠 (조) …………………………… 二十三
一. 十三世孫 肅 (숙) …………………………… 二十四
一. 十五世孫 天驥 (천기) …………………………… 三十
一. 十四世孫 宏 (굉) …………………………… 三十五
一. 十五世孫 晟 (성) …………………………… 三十六
一. 十五世孫 瑜 (유) …………………………… 三十八
一. 十六世孫 秸 (갈) …………………………… 三十八
一. 十六世孫 科 (과) …………………………… 三十九
一. 十九世孫 芝 (지) 改諱培 (개휘배) …………………………… 四十
一. 十九世孫 季男 (계남) …………………………… 四十二
一. 十九世孫 季仝 (계동) …………………………… 四十六
一. 十九世孫 季甸 (계전) …………………………… 四十九
一. 十九世孫 萱 (훤) …………………………… 五十
一. 十九世孫 莞 (완) …………………………… 五十一
一. 二十世孫 敞 (창) …………………………… 五十一
一. 二十一世孫 希奭 (희석) …………………………… 五十二
一. 二十二世孫 澤 (택) …………………………… 五十三

一. 二十二世孫 晦斗 (회두) …………………… 五十三
一. 二十三世孫 白蘭 (백난) …………………… 五十五
一. 二十三世孫 仁恕 (인서) …………………… 五十六
一. 二十三世孫 廷忠 (정충) …………………… 五十八
一. 二十三世孫 壽琬 (수완) …………………… 五十八
一. 二十三世孫 正薰 (정훈) …………………… 五十九
一. 二十六世孫 思命 (사명) …………………… 六十
一. 二十八世孫 光溥 (광부) …………………… 六十
一. 行列字表 …………………… 六十三
一. 分派圖 …………………… 六十四
一. 謂平公後系圖 …………………… 六十六
一. 家系錄 …………………… 六十七

서 문

우리는 수천년전부터 조상들이 국가와 사회와 가문을 위하여 일하신 행적을기록한 역사책을 만들고 또 간직하여 온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역사에 기록이 대부분 중국식인 순 한자로 기록되여 있고 우리가 보고 읽기쉬운 국문식은 적습니다

우리 평창이씨로 말씀드려도 역사의조상인 가보에도 현재까지 선조들에 사적기록이 순 한문으로 남아있어 자손들이 옛적부터 여러차례 가보를모시고 있으면서도 선대들에 행적을 모르는분이 그 수가많은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는 국사· 세계사· 사회사· 가문사· 기타 여러가지 역사중에도 그누구나가 첫째로 알아야할 자기네 가문에 대한 사기를 모르고서야 모든옛일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할수는없는 사실이라고 해석되는 바이오며 직접으로 생각할때 첫째 자기일을 모르고서야 남의일을 알 도리가 있는가에 대조적인 예가 되는것입니다

이 책자는 우리 평창이씨의 가보와 다른 여러가지 역사책에 기록되어있는 우리 씨족의 발원되시는 표공(알평공)의 신라시초의 위대하신 공적과 공의四十세손 윤장씨께서 고려태조 왕건씨가 건국 하실때에 위대하신공

적이 많으심으로 태조께서 대사마대장군 개국 공신백오 부천군을 봉함으로써 경주에서 평창으로 분관되여 평창이씨 시조가 되신 사적을 비롯하여 그 이하 선대조상 여러분들의 행적 사기가 순 한자로 되여 있는것을 국문으로 고쳐서 자손된 우리로서 누구나가 다 읽고 알어서 우리 자손들이사는 종중이나 혹은 타인들이사는 사회에도 우리의 혈통과 조상들의 옛적에 하신일들을 상호간 그릇됨이 없이 명확하게 소개해야 조상들과 자손들의 사이에 실례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삼가 기록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로 조상들의 하신일을 잘 알아서 조상에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자손으로써 더욱 높이고 아래로 자손들을 위하여 혈계를 간직하기위해서 시조를 위시하여 가계록(家系錄)을 첨부 하나이다

서기 一九六八年 무신 九월 九일

平昌李氏 宗親會

平昌李氏本源先系錄

三韓遺事에 曰辰韓之地(今慶州)에 有六村하니 一曰閼川楊山村(今曇岩寺)이니 其長은 瓢公이오 諱는 謁平이라 降于瓢岩峯하고 二曰突山高墟村(今南山部)이니 其長은 蘇代都利니 降于兄山하고 三曰茂山大樹村(今長福部)이니 其長은 俱禮오 降于伊山하고 四曰觜山珍支村이니(今通仙部) 其長은 智伯虎라 降于花山하고 五曰金山加利村(今加德部)이니 其

長은 祗沱라 降于明活山하고 六日明活山 高耶村(今臨川部)이니 其長은 虎珍이라 降于金崗山하니(或云六祖가 從天而降이라함) 是爲辰韓六部長也니라(東史에 曰朝鮮遺民이 居東海濱하야 分爲六村하니 是爲六部니라)

漢惠帝元年丁未에 始祖諱謁平이 初降于瓢岩峯下(在今慶州)하야 與鳩峯咸赫으로 同居라가 遂爲楊山村長하니 居民이 不能斥呼하고 號爲瓢公이러라 其時에 悶無君長하야 六村長이 會議于閼川하고(今慶州北川) 禱于天矣이러니(漢宣帝地節元年壬子春) 蘇代公이 望見楊山하니 羅井傍에 如有異氣라 使瓢公으로 往視之하니 白馬가 跪而嘶라가 因忽不見하고 只有大卵이어늘 引而剖之하니 一英兒가 出이라 收而養之하야 姓爲朴하고 名爲赫居世하니라

漢宣帝五鳳元年甲子夏四月丙辰에 推立爲王하니 時年이 十三歲라 國號를 徐羅伐(後改新羅)이라하고 以瓢公으로 爲大輔佐命壁上功臣하고 又爲阿干하야(慶州李氏大譜에는 阿飡으로 記載하야 有함) 後에 因爲婿하고 至儒理王九年하야(漢光

武(무)建(건)武(무)八(팔)年(년)壬(임)辰(진)改(개)六(육)部(부)名(명)하고 仍(잉)賜(사)姓(성)하니 以(이)楊(양)山(산)村(촌)으로 為(위)及(급)梁(양)部(부)하야 姓(성)李(리)하고 高(고)墟(허)村(촌)으로 為(위)沙(사)梁(양)部(부)하야 姓(성)崔(최)하고 大(대)樹(수)村(촌)으로 為(위)牟(모)梁(양)部(부)하야 姓(성)孫(손)하고 珍(진)支(지)村(촌)으로 為(위)本(본)彼(피)部(부)하야 姓(성)鄭(정)하고 加(가)利(리)村(촌)으로 為(위)漢(한)岐(기)部(부)하야 姓(성)裵(배)하고 高(고)耶(야)村(촌)으로 為(위)習(습)比(비)部(부)하고 姓(성)薛(설)하니라

新(신)莽(망)己(기)巳(사)에 辰(진)韓(한)地(지)阿(아)珍(진)浦(포)에 有(유)老(노)嫗(구)하야 見(견)江(강)上(상)鵲(작)鳴(명)하고 拯(증)一(일)石(석)函(함)於(어)中(중)流(유)하야 開(개)函(함)하니 英(영)兒(아)가出(출)이라 羅(라)王(왕)이 聞(문)而(이)奇(기)之(지)하고 使(사)瓢(표)公(공)으로 收(수)養(양)하야 長(장)為(위)婿(서)하고 姓(성)為(위)昔(석)하야 名(명)為(위)脫(탈)解(해)

하고 係(계)朴(박)氏(씨)為(위)王(왕)하니라

南(남)海(해)王(왕)五(오)年(년)戊(무)辰(진)(漢(한)孺(유)子(자)嬰(영)居(거)攝(섭)三(삼)年(년))에 昔(석)脫(탈)解(해)王(왕)이 望(망)見(견)楊(양)山(산)瓢(표)公(공)宅(택)하고 為(위)吉(길)地(지)라하야 以(이)計(계)取(취)之(지)하니라

漢(한)明(명)帝(제)永(영)平(평)八(팔)年(년)乙(을)丑(축)에 羅(라)王(왕)이 夜(야)聞(문)金(금)城(성)西(서)始(시)林(림)間(간)에 有(유)鷄(계)聲(성)하고 遣(견)瓢(표)公(공)視(시)之(지)하니 如(여)金(금)色(색)小(소)櫝(독)이 掛(괘)於(어)樹(수)梢(초)어늘 開(개)櫝(독)視(시)之(지)하니 英(영)兒(아)가出(출)이어늘 收(수)而(이)養(양)之(지)하야 賜(사)姓(성)金(김)氏(씨)하고 明(명)日(왈)閼(알)智(지)라하야 係(계)昔(석)氏(씨)為(위)王(왕)하니라

瓢(표)公(공)之(지)亨(형)年(년)이 二(이)百(백)餘(여)歲(세)라 事(사)蹟(적)이 詳(상)載(재)朴(박)昔(석)金(김)三(삼)國(국)史(사)하고 公(공)

의 三十七世孫諱居明(삼십칠세손휘거명)이 羅朝(라조)에 官至中書令(관지중서령)하고 子金現(자김현)은 官至兵部令(관지병부령)하고 子金書(자김서)는(子襲父名(자습부명)은 羅俗(라속)에 多有之(다유지)하니 如權貝(여권패)에 子仁幸直龔子直達(자인행직공자직달)이 是也(시야)라) 官至中原太守戶部郎中(관지중원태수호부랑중)하고 尚神鸞宮夫人(상신난궁부인)(新羅敬順王金溥(신라경순왕김부)의 第三女(제삼녀))하야 生二子(생이자)하니 長曰潤弘(장왈윤홍)이니 慶州李氏之先(경주이씨지선)이요 次曰潤張(차왈윤장)(一云天佑(일운천우))이니 平昌李氏之先也(평창이씨지선야)라 發源出祗則一也而同姓異貫故(발원출저즉일야이동성이관고)로 今依舊譜(금의구보)하고 且考歷史(차고역사)하야 追仰詳載焉(추앙상재언)하노라

前文註解(전문주해) (앞글해석)

삼한(辰韓(진한)·馬韓(마한)·弁韓(변한)) 역사에 기록하야 있기를 진한땅에 여섯마을이 있으니 첫째마을은 알천양산촌(금담암사)이니 이 촌에 장되는분은 표공이요 이름은 알평이라 하는분이 표암봉에서 하강하시고 둘째마을은 돌산고허촌이니(금남산부) 이마을의 장되는분은 소대도리라 하는분이 형산에서 하강하시고 셋째마을은 무산대수촌이니 (금장복부) 이마을의장은 구례라하는분이 이산에서 하강하시고 넷째마을은 자산진지촌(금통선부)이니 이마을의장은 지백호라 하는분이 화산에서 하강하시고 다섯째마을

은금산가리촌 (금가덕부)이니 이마을의장은 지타라하는분이 명활산에
서 하강하시고 여섯째마을은 명활산 고야촌(금임천부)이니 이마을의 장
은 호진이라 하는분이 금강산에서 하강하시니라
이시대에 사람은 여섯분 할아버지가 하날로부터 하강하셨다고 이름으로
서 이 여섯분이 진한의 육부장이 되시였느니라
(동국역사의 기록하야있기를 조선의 거민이 동해변에 다수히 거주하고
있음으로서 처음에는 여섯마을로 나누어서 지내다가 뒤에는 육부가 되
었다고 일넛느니라● 참고 조선의 부족결성이 이때부터 시작하였음) 중
국 한나라 혜제원년 정미에 시조 휘 알평공이 처음으로 표암봉 아래에
(표암봉이 경주에 있음)하강하셔서 구봉합혀으로 더불어 동거하다가 양
산촌장으로 오시니 거주하는 백성들이 감히 이름을 부르지못하고 표공
이라 존경하야서 받드러 부르니라
그때에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이 없음을 근심하시고 여섯마을 촌장이 알
천에 모여서 국왕을 보내줍소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한나라때 선
제지절원년 임자년 봄에) 조대공이 양산을 망견하니 양산아래 나정이라
는 우물 곁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것 같은지라 표공이 가셔서 그곳을 탐
시하니 흰말이 무릎을 꿇고 울다가 홀연이 간데를 감추고 보이지 않고
다만 큰 박이 그곳에 놓여 있거늘 가지고 돌아와서 그 박을 따개고보니

영웅적인 어린아이가 나오는지라 거두어서 잘 양육하야 성을박이라하고 이름을 혁거세라 하니라(후일에 이아이가 자라서 신라의 초대 왕이 되니라)

한나라 선제 오봉원년 갑자하사월병진에 박 혁거세씨를 추대하야 왕위에 오르니 그때에 나이 십삼세라 나라이름을 서라벌(뒤에 신라로 고침)이라하고 표공으로써 대보좌명벽상공신을 삼고 또 아간을 삼어서 (경주이씨 대보에는 아찬이라 써 있음) 그뒤에 표공으로 여서(사위)를 삼었고 유리왕 九년에 이르러서(한나라 광무황제 근무八년 임진)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인하야 성을주니(사성)양산촌으로써 급양부로 고쳐서 사성 이씨

하고 고허촌을 사양부로 고쳐서 사성최씨 하고 대수촌을 모양부로 고쳐서 사성손씨 하고 진지촌을 모양부로 고쳐서 사성정씨하고 가리촌을 한기부로 고치고 사성배씨 하고 고야촌을 습비부로 고치고 사성설씨 하니라

신망기사년에 진한땅 아진포에 늙은할머니가 있어서 까치우는 소리를듣고 강물위를 바라보니 강물중류에 돌함이 있는데 돌함위에 까치가 앉아서 울다가 까치는 날아가고 돌함만 강물중류에 있는지라 그 돌함을 건져서 열어보니 영특한 아이가 나온지라 이사실을 신라왕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표공으로하여금 그 아이를 수양케하야 성장함에 이름에 신라왕이 여서를삼고 성을 석 이라하고 이름을 탈해라 하야서 박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라
남해왕 오년무진(한나라입금유자영거섭삼년)에 석탈해왕이 양산에 있는 표공의 저택을 망견하고 길지라하고 계교로써 그땅을 취하니라 한나라 명제八년 을축에 신라왕이 밤중에 금성 서편 시림사이에 닭 우는소리가 있음을듣고 표공을 보내서 탐시하니 금빛과 같은 작은함이 나무끝에 걸려서 있거늘 내려서 함을열고보니 영특한 아이가 나오는지라 거두어길러서 성을 금이라하고 이름을 알지라 하여서 석씨의 뒤를이어 왕이되니라

표공의 향년이 이백여세를 생존하셨으니 그사적이 신라박씨、석씨、김씨、

삼국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표공의 三十七세손 휘거명 씨는 신라매에 벼슬이 중서령을 지냈고 아들 김헌 씨는 벼슬은 병부령을 지냈고 아들 김서 씨는 벼슬은 중원태수 호부랑중을 지냈고 신라 경순왕의 제삼녀 신낭궁 부인에게 결혼하여서 두분의 아들을 출생하니 장자는 윤홍 씨니 경주 이씨의 선조가 되고 차자는 윤장씨(천우라고도함)니 평창 이씨의 시조라 처음에 근원이 발하기를 한 뿌리에서 낳아서 성은 같고 관향은 다른 고로 그사적을 구보에 의하야 기록하고 또 역사를 상고 하여서 자세히 기재하는 바이니라

平昌李氏의發源(평창이씨의발원)

始祖(시조) 諱 潤張(휘는윤장) 또 天佑(천우)씨라고도 이름

號 白雅(호는백아) 諡號 文成公(시호는문성공)

瓢公(표공)의 三十七세손 居明(거명)씨가 新羅朝(신라조)때에 벼슬은 中書令(중서령)을 지내고 아들 金現(금현)씨는 벼슬은 兵部令(병부령)을 지내고 金現(금현)씨의 아들 金書(금서)씨는 벼슬이 中原太守 戶部郎中(중원태수 호부랑중)을 지내셨는데 新羅(신라) 五十六대의 왕인 敬順王金溥(경순왕김부)의 셋째딸 神鸞公主(신난공주)를 마저서 駙馬(부마)가

되여 두분의아들을 나으시니 장자는 潤弘(윤홍)씨요 차자는 潤張(윤장)씨라 이르니 윤홍씨는 경주이씨의 선조가되고 潤張씨는 우리平昌李氏의 시조가 되시니 한뿌리에 나서 성은 같으나 관향은 다른고로 경주이씨의 구보와 우리平昌李氏의 구보를 상고하고 또 역사를 상고하야 자세히 기재하는 바이라 우리시조 白烏府院君(백오부원군)은 新羅(신라)가 나라를 잃을때에 高麗太祖王建(고려태조왕건)씨를 도와서 건국에 큰공이 많으심으로써 光祿大夫大司馬(광녹대부대사마)의 벼슬을 지내시고 고려二대왕 惠宗元年(혜종원년)에 開國功臣과 白烏府院君(개국공신、백오부원군)을 봉함으로써 비로서 貫鄕(관향)을 경주로부터 평창으로 分籍(분적)하셔서 우리 平昌李氏의 始祖(시조)가 되시니라 그후의 文成公(문성공)의謚號(시호)를 받으시니라

參照(참조) 지금 평창군을 고려때에는 白烏(백오)라 일넜음 始祖以下(시조이하) 先賢事蹟(선현의사적)

八 世孫 匡 (광)

고려 인종왕二년 을사에 나셔서 고려 명종왕때에 太師光祿大夫樞密院府事吏部司事東北兩都巡問使 (태사광녹대부추밀원부사이부사사동북양도순문사)의 벼슬을지내시고 白烏君(백오군) 봉함을 받으시니라

九 世孫 仲仁(중인) 字仲思(자는중사)

諡號 文忠公 (시호는문충공)

벼슬은 贊化壁上功臣(찬화벽상공신)으로서 大都政承(대도정승)을 세차례지내셨고 또 門下侍郞(문하시랑)을 지내시고 文忠公(문충공)의 諡號(시호)를 받으시니라

공이 나이二十세때에 첫째로 文科(문과)에 합격하시고 四十세전에 높은 宰相(재상) 지위에 오르심으로 이때의 나라에 다시없는 젊으신 어진재상이라고 국민이우러러 일렀고 高麗朝忠臣(고려조충신) 牧隱(이름은李穡) 선생이 공의 墓碣銘(묘갈명) 비문에 이르기를 道德之首요 文章之宗이라 功在社稷하고 澤流生民이라 「해석」 도덕의으뜸이오 문장의 조종이라 공노

는 국가의 일을 크게 이룩하고 그의 덕택이 만민에 미쳐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야 국민의 생활을 윤택케 하였다고 새여져 있느니라

十一世孫 堅(견) 字君寶(자는군보)

高麗朝高宗二十六年己亥(고려조고종이십육년기해)에 魁成均試三登大科(괴성균시삼등대과)에 성균진사에 첫째로 합격하고 세차례에 걸쳐서 문과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그 당시 유명한 崔得秤(최득평)씨와 한가지로 고려사기에 기록되여있고 벼슬은 推誠保社功臣典書郞(추성보사공신전서랑)을 지내시니라

十三世孫 稠(조)

고려원종왕때에 문과에 오르시고 고려충열왕때에 密直使(밀직사)를 지내시고 국가에 크게 공훈이 있음으로써 中書侍郎推忠翊戴佐理功臣(중서시랑추충익대좌리공신)을 지내시고 또 平城君(평성군)을 봉하시니라

十三世孫 肅(숙) 璿源錄(선원록)에는 公肅(공숙)이라 기재

하야있음 선원록은 이씨조선왕족직계 보첩을이룸

중국원나라 조정에서 千牛衛長史(천우위장사) 벼슬을 지내시고 高麗恭讓王(고려공양왕)이 나라를 잃고 朝鮮李太祖成桂(조선이태조성계) 씨가 나라의 왕위에 오르신후 魯山府院君(노산부원군)을 追封(추봉)하시고 李太祖(이태조)께서 부원군의 不遷祠宇(불천사우)를 平昌에 세우시고

錦袍(왕이 친히 입으시는옷)와 犀角帶(왕이 친히 띄시는 띄)를 下賜(하사)하시고 매년 봄과 가을 양철에 치제하는 예관을 보내시고 또 平昌군의 수령(군수)에게 명하야 치제 하시도록 하시니라 英宗大王四十四年戊子(명종대왕四十四년무자)에 영종께서 다시 사우를 중수하시고 禮曹(예조)에 명령하시와 향사하는 관복을 하사하시고 그해 十月에 侍臣右副承旨金履正(시신우부승지김이정)을 致祭禮官(치제예관)으로 보내시는 동시에 영종께서 친히 지으신 축문을 代讀(대신 읽는것)하고 치제하도록 명령하시니라

英宗大王御製致祭文

穆祖初載 天作之合 毓祉篤慶 肇我赫業 如周緜錄 自初姜嫄

推本所生 禮宜精禋 錦袍犀帶 聖朝攸錫 遡彼桑鄉 尙有舊蹟

迺造祠版 迺建妥宇 迺命近臣 替有尊酒

[해석] 穆祖(목조)는 처음하날이 二姓(이성)의 夫婦(부부)의 합하심을 지어주심이라 목조왕비께서는 번성하고 복이있는 터를 이룩하시고 모든 일에 대하셔서 항상 두텁고 경사스러운 일을실천하심으로써 우리의 王業(왕업)이 대대로 빛나게하신 遺德(유덕)이온바 그유덕은 주나라의 緜錄(면녹)과 같고 姜源(강원)의 성스러운 일을 본받어내려서 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태조께서 왕업을 이루게 하신고로 마땅히 예로써 제사를 정

성스럽고 정결하게 올리는뜻을 베푸셔서 금포와 서각대를 태조께서 하사하신바가있고 멀고먼 聖鄕(성향:평창의 관향을 존칭하는말)이신 평창에 祠宇(사우)를 세우신 구적이 있음으로 이에 祠版(사판)과 사우를 다시 중수하고 侍臣(시신)을 보내어서 대신 尊酒(준주)를 올리옵니다

사우를 光武元年에 서울로 봉안하였다가 기미년에 후손 榟榮(재영)씨가 북청화양면으로 봉안하니라

이태조께서 부원군의 사우을 평창에 세우신 聖旨(성지)목조대왕은 전주 이씨 시조 翰(한)씨로부터 十八세孫이 되시는 분인바 부원군 肅(숙)씨의 딸님을 마저서 부부가 되신후 왕비되신 平昌李氏(평창이씨)는 聖德

(성덕)을 베풀어서 王子(왕자)와 王孫(왕손)을 교양하심에 六德(육덕)과 六行(육행)과 六藝(육예)로써 가르치어서 그성스러운 교훈이 후대에 미쳐서 내려옴으로써 五세孫이 되시는 成桂(성계)씨 같으신 英雄(영웅)이 나시어 朝鮮初代(조선초대)의 왕으로 등국하시니 이분이곳 이태조시니라 이태조께서 왕업을 이룬것은 왕비의 유덕이라 聖念(성염)하시고 穆祖大王(목조대왕)의 장인되시는분 부원군 肅(숙)씨의 사우를 平昌에 세워서 매년 춘추 양절에 치제하도록 명령하시니라

[참조] 穆祖大王(목조대왕)이 翼祖大王(익조대왕)을 탄생하시고 翼祖大王(익조대왕)이 度祖大王(도조대왕)을탄생하시고 度祖大王이 桓祖大王을 탄생하시고 桓祖大王(환조대왕)이 太祖大王을 탄생하시니 太祖大王이 穆祖大王의 五世孫鼻玄孫이 되시느니라 穆祖大王妣平昌李氏(목조대왕비평창이씨)를 孝恭王妣(효공왕비)라 존칭함

平昌郡의 沿革 (평창군의 연혁)

高句麗(고구려)때에는 郁烏縣(욱오현)이라 하였고 新羅 신라)때에는 白烏郡(백오군)이라 하였고 高麗忠肅王二十五年에 縣令(현령)을두어서 군을 현으로 고치였더니 이태조가 왕위에 오르신후 태조원년에 孝恭王妣(효공왕비)에 聖鄉(성향)임으로 다시 군으로 승격시키시니라 평창의 옛날 군명은 郁烏(욱오) 白烏(백오) 魯山(노산) 魯城(노성)이라 하였음

十五世孫　天驥(천기)　初諱 玕(초휘는간)　號 白河(호는백하)

高麗忠肅王元年(고려충숙왕원년)에 나시고 生員試(생원시)에 첫째로합격 하시고 恭愍王四年乙未(공민왕四년을미)에 中乙科(중을과)하시고 중국에 明國皇帝(명국황제)가 등극한뒤에 致命使臣(치명사신)으로 명국에 들어가시니 이때에 남만이 명국을 침범하여 난이일어났으나 명국조정에서는 이를방어할 장재가없어서 근심하던차에 명국조정대신등이 공의 문장과 무예가 출중하고 지혜와 용역이 과인함을보고가이큰일을맛김즉하다고 대신등이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불러보시니 사람에 지내는 雄才(웅재)가 있는지라 駿馬(준마) 한필과 갑옷과 칼을 하사하고 그 무예

를 시험하여 본즉 과연 일세의 英雄(영웅)이라 곧 대장 印紳(인신)을 下賜(하사)하고 군마를 발하여 남만을 치게 하시니 남만으로 더불어 수월 을싸우다가 남만을쫓아서 남만국에 깊이 들어가서 二년만에 남만을 항복받고 개선하여 돌아오시니 황제가 그 큰공을 아름다이 여기시고 散騎常侍(산기상시)라는 높은 벼슬을 하사하시니 공이 죽기로써 사직하고 행직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시니 황제가 말씀하시되 卿(경)이 어찌하여 벼슬을 받지아니하고 그 다지사양하오 하시니 공이 황제에게 아뢰되 신이만일 이 벼슬을 행직하면 고국에 돌아가기가 어려웁니다 이 벼슬은 고국의 국왕과 신의 직품과 동급이되오니 위로는 해와달의 밝은것을 우

르러서 보기가 어렵고 아래로는 강산의 아름다운 땅을 밟아서 행하기가 어렵게 되옵니다 하고 아뢰니 황제가 말씀하시되 이벼슬인즉 일품의 벼슬이라 공신의 큰 공로와 어진 덕을 저버리리오 하시고 조선왕에게 金紫光祿大夫(금자광록대부)를 더하여 승격하노니 다시는 사양하지 말으시오 하고 인하여 처음이름 玕(간)을 황제가 친히 天驥(천기)라고쳐서 賜名(사명)하시니라 三년이된 뒤에 고국에 돌아오신즉 高麗王朝恭讓王(고려왕 조공양왕)이 나라를 잃고 이태조가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시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도읍을 한양(지금서울)에 옮겼음으로 나라가 바뀌어져 이씨의 왕국인 새 세상이 된지라 드디어 나라가 바뀐것을 감동하시

어 시를 읊으시니 시에 가로되 漢水烟霞는 開勝地하고 松京花草는 沒荒塵이라 故宮落月은 餘殘魄이오 新市悲風은 摠暮春이라

「해석」 한강에 끼인 연기와 안개는 승지강산을 열었고 송도서울에 아름다운 꽃과 풀은 거친땅 티끌에 빠졌도다 송도에 있는 옛 궁궐에 떨어지는 달은 쇠잔한 넉만 남아있고 한양서울 새저자에 슬프고 쓸쓸한 바람이 저무러 가는 봄과 같도다 드디어 三년간을 은거하시고 세상으로 더불어 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태조가 그 절개를 아름다이 여기시고 平昌君(평창군)을 봉하시니 사적이 輿地勝覽(여지승람)에 기재하여 있느니라 공이 평상시에 鄭圃隱(정포은)과 吉冶隱(길야은) 두분 선생을 사귀어서 서로 朋友

(붕우)의 의로 친절히 지내셨음으로 공이 치명사신으로 천조에 들어가실때에 포은선생으로부터 송별시가 있으니 그 시에 이르기를 書生手中劍이 照膽光劍新이라 渡海謁天子요 乘舟辭故人이라 秋風禮成港이요 明月楊子津이라 好去勤王事하야 歸來莫逡巡하라 「해석」 서생의 손가운데 칼이 쓸개에 비치어서 칼날이 빛나서 새로웁더라 바다를 건너면 천자를 뵈일터이오 배를 타니 벗을 하직하는도다 가을바람에 예성항구를 지나고 밝은 달밤에 양자강을 건너는도다 연고없이 편안히 가서 나라일을 부지런히 하여 고국에 돌아와서 차이가 있는 두가지 일을 하지말지어다 「參照」(참조) 그때에 우리나라는 명국의 諸候國(제후국)임으로 우리나라왕의 직위는 명국에서 銀紫光錄大夫(은자광록대부)의 직품에 해당한것으로 취급하고 명국의 散騎常侍(산기상시)라는 직품이 은자광녹대부에 해당함으로써 공의 직품과 고국의 국왕의 직품과 동급인고로 공이 행직아니하시기로 맹서하시니 명국황제가 우리나라왕의 직품을 금자광녹대부(金紫光錄大夫)의 해당하는 일급의 직위를 올린바이니라

十四世孫 宏(굉)

고려충목왕때에 軍簿判書(군부판서)를 지내시고 중국원나라조정에서 都督(도독)을 지내셨는데 그 공이 컸음으로 원나라천자순제께서 璽牒(새첩을써서 공적을 찬하 하셨는데 그글은 몽고글자로 총四十八자로 써있으

며 己未보책 발간할때까지 평양에 살고있는 후손 창희댁에 六百년동안 보관되여왔고 그 寫本(사본)이 우리족보 己未보와 戊戌보에 등재되여 후손들에 기념으로 되여있음

十五世 孫 晟(성)

벼슬은 宣援將軍管軍萬戶(선수장군관군만호)를 지내시고 공의 나이二十세에 문과시험에 합격하시고 문학을힘써 연구하심으로 그당시 학자등이 사방에서 구름과같이 모여서 그 강론하심을 듣고 문학의문고라 일러서 그의 문장이 세상에 뛰어나셨고 또 그뒤에 벼슬은 成均祭酒(성균제주)를 지내시고 文景公(문경공)의 諡號(시호)를 받으시니라 공이 벼슬을

사직하시고 은퇴 하실때에 退老詩(퇴로시)가 있으니 그 시에 이르기를

藥砌清風은 欺我老요 竹溪明月은 誘吾情이라 前霄에 己決歸田計러니 雪盡江南에 匹馬行이라

「해석」 약풀을심은 섬 뜰위에 부는 맑은 바람은 나의 몸이 늙어 가는 것을 족기며 푸른 대 수풀 시내 맑은 물가에 비취는 밝은달은 전원으로 돌아가라는 나의 심정을 유인하는도다

어제밤에 이에 전원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결정하고서 오늘날 흰눈이 다 사라진 강남땅 평평한길에 한필말에 올라서 한가히 행하는도다

공이 귀향할때에 將相(장상)과 고우(故友)가 人海(인해)를 이루어서 전

송함을 받으시니라

十五世孫 瑜(유)

高麗忠肅王十五年戊辰(고려충숙왕十五년무진)에 출생하시고 고려공민왕조때에 문·무·양과에 합격하신후 東北兩都巡問使平章事(동북양도순문사평장사)의 벼슬을 지내시고 中國元朝(중국원조)에 들어가셔서 科擧(과거)에 합격하신바 그 시문과 필법을 중국사람이 절묘하다고 다투어 보고 칭송이 높았다는 사적이 輿地勝覽과 東國史記(동국사기)에 기재하여 있느니라

十六世孫 秸(갈)

高麗耦王(고려우왕)때에 국가에 훈공이 많으심으로 啓仁君(계인군)봉함을 받으시고 사직하시여 북청으로 은퇴하신후 자손이 지책하여 거주하니 상시공의 둘째아들님이 되시느니라

十六世孫 科(과)

高麗忠穆王二年丙戌(고려충목왕二년병술)에 출생하시고 벼슬은 司直(사직)을 지내셨는데 散騎常侍公(산기상시공)이 隱居(은거) 하심을 따라서 은퇴함으로써 이태조께서 여러차례 부르시나 출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의 사람이 그 높은 절개를 아름다이 여기고 거사라 칭하니 상시공의 셋째 아들님이 되시느니라

十九世孫 芝(지) 改諱 培(개휘 배)

正統甲子年(정통갑자년)에 출생하시고 世祖丙戌年(세조병술년)에 처음으로 宣敎郎(선교랑)을 지내시고 成宗戊申年(성종무신년)에 禮賓寺直長(예빈사직장)으로 지내시다가 暴君燕山主(폭군연산주)가 성질이 사납고 음탕하여서 주색과 성악에 빠져서 사치와 호화스러운 일만 숭상하고 조정에 충신을 살해하고 귀양보내고 국민을 괴롭게하는 학정만 베푸는 고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충간하시나 듣지아니하고 그 당시 李淸(이청)씨라 하는 충신이 충간 하다가 귀향감을 보시고 그때에 같이 벼슬하던 朴遂良(박수양)씨와 같이 사직하시고 본향에 은퇴하시와

도덕을 닦고 학문을 강론 함으로써 사방에서 유명한 젊은학자가 구름모이듯하여 문하에 제자가 다수하니라 또 당시 도학이 높은 佔畢齋金公(점필재김공)을 친한벗으로 사귀어서 세상사를 논의 하시니라 그때에 폭군 연산주를 추방하고 中宗大王(중종)이 왕위에 오르시고 여러차례 부르셨으나 출사하지 아니하시다가 왕께서 다시 예우로써 부르심으로 入朝(입조)하시와 司直(사직)의 벼슬을 지내시다가 국가에 공훈이 많으심으로써 二相(이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시니라 공이 칠십일세에 逝去(서거)하시니 왕께서 吊官(조관)을 보내시여 致祭함을 명하시고 靖肅公(정숙공)의 謚號(시호)를 下賜(하사)하시니라

十九世孫　季男 (계남) 字子傑(자는자걸) 號青雲(호는청운)

諡號 翼平公(시호는익평공)

正統戊辰年(정통무진년)에 나시고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崇祿大夫行吏曺判書 兼判義禁府事封平原君(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숭록대부행이조판서 겸판의금부사봉평원군)의 官職(관직)을 歷任(역임)하시고 공이 천품이 뛰어나시어 나이 二十三세때에 문과에 합격하시고 豊德郡守(풍덕군수) 漢城府庶尹(한성부서윤) 承政院同副承旨(승정원동부승지) 吏曺叅議(이조참의) 戶曺叅議(호조참의) 忠清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시고 내직으로 同知中樞府事 兼 五衛都摠府副總管(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을 지내시고 壬子에 명국황제의 태자책봉의 조서가 본국에 일음에 공이 謝恩使(사은사)로 명국에 들어 가셨다가 환국 하셔서 同知敦寧府事(동지돈영부사)에 임명 되시고 그 익년에 司憲府大司憲(사헌부대사헌) 배하심을 받으시고 慶尙道觀察使(경상도관찰사)로 赴任(부임) 하셨다가 돌아오셔서 漢城府右尹(한성부우윤)을 지내시고 甲寅에 平安道觀察使로 赴任(부임) 하셨다가 서울에 돌아오셔서 戶曺叅判(호조참판)을 지내시고 다시 大司憲(대사헌) 임명함을 받으시고 또 刑曺叅判에 전임 하시고 甲子에 戶曺判書에 陞職(승직)하여 禁府(금부)의 임부를 겸하시니라 때에 昏主燕山(혼주연산)이 날로 더욱 학정이 심하여 감으로 丙寅年九月(병인

년九월)에 朴元宗(박원종) 成希顔(성희안) 柳順汀(유순정) 諸公(제공)이
한나라때 霍光(곽광)에 옛일에 의하여 혼수를 廢位追放(폐위추방) 하자
는 義擧를 謀議(모의)하는날 밤에 모든 계책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음
만 煩勞(번노)히 지내고 있을 이때에 공이 늦게 일으셔서 모든일을 시행
함에 그 계책이 세밀하여 완전히 성사 하겠음으로 좌우가 그 계책을 탄
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지라 이에 그 계책에 의하여 혼주 연산군을
폐위하고 中宗(중종)을 모셔서 왕위에 오르시니라 靖國(정국)의 功勳
으로 인하여 秉忠翊運靖國功臣崇祿大夫行吏曹判書平原君 (병충익운정국
공신숭록대부행이조판서평원군)을 봉 하시고 翼平公(익평공)의 諡號(시

호)를 下賜하시니라 공이 평소에 成宗(성종)의 知遇(지우)의 恩寵(은총)
을 입으사고 또 國朝名臣(국조명신) 佔畢齋金公(점필재김공)으로 더불어
친우를 삼으시고 세상사를 논의하시니라 공이 壬申年三月(임신년삼월)
에 병으로 서거하시니 향년이 六十五세라 병중에 계실때에 왕께서 御醫
(어의)와 약을 하사하시고 또 中使(중사)를 보내시여 問病(문병)하시더
니 逝去(서거)하심에 안타까운 심회를 품으시고 특히 賻儀(부의)를 하사
하시니라 공의 묘소의 神道碑文(신도비문)은 崇政大夫左贊成大提學(숭정
대부좌찬성대제학) 申用漑(신용개)씨가 撰(찬)하니라 國朝名臣思齋金相
公正國(국조명신사재김상공정국)씨가 만사문을 올렸는데 그 만사문에 이

르기를 勳業三朝老요 中興社稷臣이라 公心은 留藻鑑이오 時論은 屬台勻
이라 忽秘忠淸德이요 云亡耆舊人이라 空揮羊子淚하고 題輓更沾巾이라

「해석」 삼대국조에 공훈이 컸었고 사직을 중흥한충의가큰신하로다 공명정대한 마음은 맑은거울과 같고 국민의 여론은 덕이높은 재상으로 우러러 보는도다 홀연이 충의가 높고 맑은덕을 감추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니 슬프다 옛날에 지기하는 친우를 잃었도다 공연히 양자의 눈물을 뿌리고 한붓으로 만사의 글을 쓰니 슬픈눈물이 수건을 적시는도다

十九世孫 季仝

成宗朝(성종조)때에 武科(무과)에 합격하시고 공의 나이 二十九세때에 大司憲(대사헌)과 兵曹判書(병조판서)에 이르시고 靖國(정국)하신 공훈으로 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보국숭록대부영중추부사)와 憲武公(헌무공)의 諡號(시호)를 下賜(하사)하심을 받으시니라 篠叢洪裕孫(조총홍유손)씨가 이르기를 문무의 전재를 겸하여 있고 또 은덕과 높은절개가 있다고 칭송 하였고 평소에 國朝名臣(국조명신) 佔畢齋(점필재) 김공으로 더불어 서로 시문을 수답하시며 상종하셔서 소일 하시니라공이 逝去(서거)하신후 나라에 이름이 높으신 仲庵金先生(중암김선생)이 만사분을 올리시니라

「輓詞文」 將星光彩暎文星 天遣昌辰岳降靈 塞外長城雄北漢

朝中砥柱峙東溟 壯魂縱與乾坤化 高節應傳鼓鼎銘
修短人生從古事 劒懸殘幕舊堂扁 翮摧霜鶻隋秋天
一夢功名五十年 戀義華騮嘶月下 失恩鸚鵡泣風前
南樓興散空淸夜 綠野香飛鎖暮煙 怊悵床頭懸寶劒
笛聲高怨柳營邊

「해석」 장성의 광채가 문성에 비취어서 하늘이 창신을 보내시고 오악은 실영을 내렸도다 변방밖에 진성은 북한에 웅장하였고 조정가운데 지주는 동명에 우뚝 하였더라 장한 혼은 놓아서 건곤으로 더불어 화하였고 높은절개는 빽빅이 고정에 전하여 색였더라 수단하는 인생이 옛일을

쫓았고 칼은 쇠잔한 장막 옛 당중에 걸렸도다 빨리날고 날랜 매는 가을하늘에 떨어졌으니 꿈속같은 공명이 五十년을 지냈더라 주인을 생각하는의가 있는 빛난 준마는 밝은달 아래서 울고 은혜를 잃은 앵무는 바람앞에 울더라 남쪽 누대에 걸었든 흥은 맑은밤에 흩어지고 푸른들의 향기는자욱한연기가 저문가운데 날었더라 슬프고 슬픈 빈책상 머리에는 보배칼이 걸려있고 피리 소리는 버들진터 가에서 원망스러이 높았도다

十九世孫 季甸

甲寅生(갑인생) 端宗朝(단종조)에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政大夫行兵曹判書兼義禁府都事黃海道觀察使兵曹叅議刑曹叅議工曹叅議左賛成(수충위

사협찬정난공신숭정대부행병조판서 겸 의금부도사 황해도관찰사 병조참의 형조참의 병조참의좌찬성)을 歷任(역임)하시고 靖難功臣으로 공훈이 있음으로 西原府院君(서원부원군)을 봉하고 文烈公(무열공)의 諡號(시호)를 받으시니라

十九世孫 萱(헌)

공이 소년때로부터 문학연구에 깊은 뜻을 두시고 모든 서적을 섭남하시니 특별히 성이학에 더욱 힘써서 세상사람이 동방의 도학군자라는 지중을 받으시니라 벼슬은 司直(사직)으로 지내시다가 사임하신후 특별히 도학이높으신 고로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經筵參贊官(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 경연참찬관)의 贈職(증직)을 받으시니라

十九世孫 莞

官司勇(관사용) 贈嘉善大夫兵曹參判(증가선대부병조참판) 공이 能文善書(능문선서)하시고 氣品(기품)이 豪邁(호매)하시고 風姿(풍자)가 秀美(수미)하시여 신선의 風貌(풍모)가 있어서 세상 사람이 신선중에 일인이라는 지칭을 받으시니라 공이 出仕(출사)의 뜻이 없어서 사임하시고 八域江山(팔역강산)을 周遊(주류)하시니라

二十世孫 敞(창)

흠치팔년 을묘에 生員(생원)에 합격하시고 中宗朝(중종조)에 弘文館博

士 通訓大夫 靈光郡守 戶曹正郞(홍문관박사 통훈대부 영광군수 호조정랑)
을 歷任(역임)하시고 燕山主(연산주)를 廢位追放(폐위추방)하신 공훈으
로 靖國功臣(정국공신)으로 工曹判書(공조판서)의 관직을 임명하시고
平川君(평천군)을 봉하시니라

二十一世孫 希奭(희석)

弘治二年己酉、(홍치二년기유)에 출생하시고 가정十二년에 進士狼川縣監
奉正大夫 南原府使(진사랑천현감봉정대부 남원부사)의 직위 임명을 받으
시니라 공의 성품이 청렴 결백 하사어 일에 당하여 처단하시는 것이 추
호라도 차이가 없어서 공명정대 하심으로 治蹟(치적)이 높으심으로 境

內(경내)에서는 夜不閉門(야불패문)하고 道不拾遺(도불십유)하여 頌聲
(송성)이 높았음으로 특별히 남원부사를 제수 하시니라

二十二世孫 澤(택)

定州牧使 寧邊府事 資憲大夫 戶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副總官行
竭誠奮威振武功臣 嘉善大夫平原君 (정주목사 영변부사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행 갈성분위진무공신 가선대부평원군)을
봉하시니라 事蹟(사적)이 文獻錄功臣篇(문헌록공신편)에 기재하여 있느
니라

二十二世孫 晦斗(회두) 字而章(자는이장) 號貞居齋(정거재)

영종왕때에 출생하시여 자친되시는 이씨가 일찌기 낮에졸다가 봉회산에 올라가니 작은기린이 석굴로써 쫓아서 나오는것을 품안에 안고서 깨달으니 한 꿈이라 일로부터 잉태하니 부공되시는 사암공이 이상히 여기고 있었는바 본 읍부사 조근씨가 봉회산을 바라보고 하는말이 후일에 반드시 이산 운기로 인하여 군자가 나오리라 하더니 과연 그의 응조에 의하여 공과 같으신 군자가 나시니라

공이 천품이 총명하여 널리 학문을 닦으시고 특히 성이학을 연구하심으로 도학이 높아서 중종왕께서 참봉을 제수 하시니 행직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御筆親製朱書(어필친제주서)와 九종의 물품과 寶墨(보묵)을 하시

하시고 그해에 또 十一종의 물품을 하사하시고 또 익년 병진에 十二종의 물품을 하사하시니 왕의 은사가 두세차례에 이르지 아니한지라

공이 말씀하시기를 임군이 하사하신 물건을 감히 사사로이 쓰지 못한다 하고 제전과 서적을 사서 친족에게 나누어 주니 왕께서 이 사실을 들으시고 아름다이 여겨서 말씀하시기를 선비의 도가 마땅히 이같이 할지로다 하시니 이 사적이 簪獻錄徵士篇(잠헌록징사편)에 기재하여 있느니라

공의 墓碣銘文(묘갈명문)은 大司憲(대사헌) 恩津宋秉璿(은진송병준)씨가 지으시니라

二十三世孫 伯蘭(백란) 字德馨(자는덕형)

중종갑오년에 출생하시고 선조갑술년에 進士(진사)에 합격하시고 箕子殿參奉(기자전참봉)으로 지내시다가 宦路(환로)에 뜻이 없어서 사직하시고 평창군 남쪽 오도산에 은퇴 하시와 도를 닦고 학문을 강론하시니 공의 시문필법이 당세에 뛰어났음으로 門下(문하)를 좇아서 배우는 자가 심히 많아서 노성의 문학이 이로부터 다시 진흥하니라

二十三世孫 仁恕

중종계묘년에 출생하시고 선조때에 將仕郎(장사랑) 벼슬을 지내시니라

공이 소년시절로부터 천성이 활달하여 무예에 능숙하여 말타기와 활쏘기와 칼쓰기를 잘하심으로 그때의 사람이 將材(장재)가 있다고 이른바 선조때에 임진왜란을 당하여 國難(국난)을 구하자는 忠義(충의)의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의병을 모집하여 평창군수 權斗文(권두문) 羅壽千(라수천) 智士涵(지사함)과 같이 평창군 남쪽 鷹岩屈(응암굴)에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왜적이 당도함을 당하여 돌격하니 왜적이 강중에 빠져 죽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왜적의 사체가 강이 메이고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영월땅 사천까지 흘러갔으나 왜적의 후진의 군사가 많았음으로 적은 군사로써 많은 왜적을 대적하는데 최후까지 싸우다가 의를 굴하지 아니하고 권두문씨와 같이 응암굴하에서 전사하시니라 그 忠勇(충용)하신 공훈으로 평난후에 秉忠振威將軍(병충진위장군)의 직을 선조께서 하

사 하시니라

二十三世孫 廷忠 (정충) 字士信 (자는사신)

禦侮將軍全羅水虞候宣傳官武科內禁將訓練院正 (어모장군전라수우후선전관무과내금장훈련원정)을 歷任(역임)하시고 공이 소년시대로부터 무예를 숙습하시여 將材(장재)의 천출이 되어서 선조 임진왜란때에 忠武公李舜臣將軍(충무공이순신장군)의 부장으로 전공을 많이 세우고 불행히 전몰하시니라 사적이 충무공 일기에 기재하여 있느니라

二十三世孫 壽鵷 (수완)

선조신미년 九月에 출생하시고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를 지내시고

국가에 공훈이 많으심으로 平原君(평원군)을 봉하시니라

孝宗丙申三月(효종병신삼월)에 逝去(서거)하시니 효종왕께서 賻儀(부의)로 棺(관)을 하사하시고 禮官(예관)을 보내시여 致祭(치제)하시니라

二十三世孫 正薰

숙종경신년에 출생하시고 무자년九月에 文科(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入闕(입궐)하시니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一門七科豈其偶然(한집안에서일곱사람이 문과에 합격하니 어찌 그 우연한 일)이라 이 여덟 글자를 친히 써서 하사하시고 翰林學士司諫院正言兼 實錄廳編修官修撰官(한림학사사간원정언겸 보록청편수관수찬관)을 임명하시니라

二十六世孫　思命（사명） 字 天若（자는 천약）
명종경술에 출생하시고 長淵·平山·祥原·南原·水原·京畿水使訓鍊院都正兼 五衛都摠府副總官（장연·평산·상원·남원·수원·경기수사훈련원도정겸 오위도총부부총관）을 역임하시고 선조때 임진왜란에 전공이 많았였고 인조때 이괄반란에 공이 컸음으로 증주에 戰勝碑（전승비）가 세워있고 임진란과 이괄란 두차례에 걸쳐서 공이 컸음으로 剛武公（강무공）의 諡號（시호）를 받으시니라

二十八世孫　光溥　字子淵（자는자연）
숙종갑술에 출생하시고 明經科（명경과）에 합격하시고 輔國崇祿大夫行同

知中樞事兼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總官奉朝賀 外職（외직）으로 大同·畿都·龍安·碧潼·順天·鍾城·蔚山·豊川·江界·晋州·洪州·鏡城邑等（보국숭록대부행동지중추부사겸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봉조하 외직으로 대동·기도·용안·벽동·순천·종성·울산·풍천·강계·진주·홍주·경성읍등）의 군수·부사·목사·의관직을 역임하셔서 治績이 밝으심으로써 송덕이 자자하니라 병술년에 耆社（기사）에 들어가심에 왕께서 자주 부르셔서 入闕（입궐）하여 殿上（전상）에 오르실때에 왕께서 內侍（내시）를 명하시어서 扶腋（부액）하여 전상으로 오르시게하고 寶墨을 자주 자주하시니라

임진년에 致政(치정)하시니 왕께서 말씀하시되 歲寒然後에 知松栢之後凋라 予於卿에 全未究用眷遇(해가찬 연후에 송백이 뒤에 떨어짐을 알지라 내가 경에게 전연이 대우함을 다하지 못하였노라)하시니 왕의 은총을 입으신것은 비할대 없었느니라 향년八十세에 서거하시니 왕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조관을 보내어서 葬禮(장례)를 이루도록 하시고 致祭를 명하시니라

行列字表

世	行列字	
三十二世	鍾○	鉉○
三十三世	○浩	
三十四世	○模	○根
三十五世	炳○	熙○
三十六世	○均	○基
三十七世	鎔○	鎭○
三十八世	○洙	○湞
三十九世	和○	柱○
四十世	○燐	○烈
四十一世	載○	時○
四十二世	○錫	○善
四十三世	淳○	濟○
四十四世	○相	○柱
四十五世	夏○	炯○
四十六世	○珪	○培
四十七世	鎬○	鏞○
四十八世	○泰	○河
四十九世	東○	柄○
五十世	○	○煥
五十一世	在○	埼○
五十二世	○鈺	○銖
五十三世		
五十四世		
五十五世		

平昌李氏分派圖

一世 始祖 潤張 — 二世 仲 — 三世 鎰 (鉉) — 四世 宛 — 五世 忠德 — 六世 雲峰 (氣峰) — 七世 善招 — 八世 匡 — 九世 仲仁 — 十世 作林 — 十一世 堅 — 十二世 承衍 — 十三世 稠 — 十四世 台 — 十五世 天驥 — 十六世 稑 — 十七世 韻 — 十八世 永祥 — 十九世 — 二十世

派別	各派居住地

- 永祥
  - 萱 — 司直公 — 麟蹄
  - 莞 — 司勇公 — 旌善
    - 漢弼 — 水使公 — 蔚珍
  - 薇 — 僉正公 — 旌善
  - 芝 — 靖肅公 — 平昌 江陵
- 韻
  - 宗陽 — 永富
    - 元進 / 元義 / 元信 — 進士公 — 杆城
  - 宗陽 — 永麟 — 元拔 — 主簿公 — 龍仁
  - 宗陽 — 永桂 — 山富 / 山老 — 府使公 — 北靑
  - 宗陽 — 永琇 — 季甲 — 監正公 — 楚山
  - 宗美 — 永瑞
    - 季男 — 亮 — 翼平公 — 平澤 水原 抱川
    - 季男 — 敞 — 平川君 — 洪川
    - 季仝 — 憲武公 — 江陵 端川
  - 永東 — 季甸 / 季孫 — 文烈公 — 平康 鐵原
- 稑
  - 秸
    - 宗明 — 孝孫 / 文孫
    - 宗盛 — 遠景 — 之蕃 — 啓仁君 — 北靑
    - 宗直 — 得淸
    - 環 — 允迪 — 銀遜
  - 科 — 壽莊 — 仁鄉 — 長景 — 常侍公 — 新溪 金川
- 天驥
  - 瑜
    - 原道 — 衡平
    - 原道 — 廣平 — 德思 — 茂 — 平章公 — 伊川
    - 存道
    - 文道
    - 遵道 — 梃
      - 永錫 — 鏜
      - 允錫 — 鏗
      - 承錫 — 載魯 / 載檍
    - 遵道 — 森 — 達孫 — 德生
- 稠
  - 宏 — 晟 — 漢達 — 稚 — 苞 — 㞑 / 徽 — 文景公 — 江西 龍崗

克寬—仁美—成—肅—元—特仁—致—義生

致 — 貴孫—茂昌

致 — 孝孫

致 — 孝宗

致 — 錫山

致 — 錫素

崙

巖

峕

謁平公後系圖

世		
一世	諱謁平	新羅佐命 壁上功臣
二世	侑	
三世	它	
四世	仲嘉	
五世	奭	
六世	儒理	
七世	文祥	
八世	昉	昫
九世	秀章	
十世	綏	
十一世	起貞	
十二世	美善	之廉
十三世	成立	元立
十四世	曙	曜
十五世	啓烜	
十六世	傑	伅
十七世	宣璋	赫
十八世	基瞻	
十九世	仁興	
二十世	櫎	樂
二十一世	善禎	光玉
二十二世	棣	
二十三世	泰暉	
二十四世	友榮	
二十五世	駿	
二十六世	紹	
二十七世	敬智	
二十八世	頊	俊
二十九世	元長	
三十世	漢老	
三十一世	秀湯	
三十二世	裪	
三十三世	嗣彦	
三十四世	岐	
三十五世	禧斗	辰斗
三十六世	誠	
三十七世	居明	
三十八世	金現	
三十九世	金書	
四十世	潤弘 (慶州)	潤張 (平昌) 白鳥府院君始貫平昌

一世

始祖 **潤張**

一云諱天佑
高麗太祖朝始仕光祿大夫開國功臣大司馬白烏府院君諡文成公號白雅
惠帝元年癸卯仍貫焉
配鷄林朴氏昌德夫人生一男五賢殿配享

二世

子 **仲**

官國子監光祿大夫中華令
高麗太祖開國功臣二等勳
配昌寧郡夫人淸風金相睦女生二男

三世

子 **鎰**

官集賢殿太學士銀柴光祿大夫侍中
配光山金氏紫光輔國夫人

四世

子 **宛**

官兵部侍郎兵部中尉享年六十五
配文化柳氏生一男享年七十七

五世

子 **忠德**

官兵部郎中侍中太尉享年七十二
配敎淑夫人光山金氏生一男享年六十七

六世

子 **雲峰**

官至國子監中國宋朝入使封大司馬大將軍還古國卒享年八十
配敬國夫人南陽洪氏生一男

七世

子 **善招**

高麗光祿大夫集賢

八世

子 **匡**

高麗仁宗乙巳三月二十日生
明宗朝官至太師光祿大夫樞密院府使封白烏君
毅宗庚寅四月十六日卒墓江原道伊川古味呑面金坪里後山辛坐
配昌國夫人韓山李氏墓合兆

九世

子 **仲仁**

字仲思官至招賢誠亮墓上同原同坐
配郡夫人安東權氏墓合兆

十世

子 **作林**

官至典理總管司錄高麗高宗庚辰封橫成郡墓金坪里後山辛坐
配淑夫人密陽朴氏墓合封

子 **克寬**

官典書

十一世

子 **堅**

字君寶保杜功臣典書郎
配淑夫人慶州崔氏

子 **仁美**

官校理

十二世

子 **承衍**

元宗朝官至檢校中承平章事封平城君
配淑夫人慶州金氏

子 **成老**

十三世

子 **稠**

官至中書侍郎佐理功臣封平城君
配完山郡夫人延安李氏墓古味呑面龍淵洞癸坐合附

十四世

子 **台**

忠烈王二十六年庚子生
忠惠王通仕郎中部監事
配全州金氏墓上同

十五世

子 **天驥**

號白河
忠惠王甲子生明朝入仕討伐南蠻封散騎常侍公墓長端郡長道面涉是

十六世

子 **稑**

洪武乙丑生嘉善大夫慶昌府尹
配貞夫人慶州崔氏

十七世

子 **韻**

一云宗韻三和縣事
配淑人高麗王氏

子 **宗陽**

十八世

子 **永祥**

文監察康津縣監
配淑人江陵金氏墓公州灘川面松鶴里松谷乾坐

子 **永富**

合兆

里馬場隅後山甲
坐
配貞敬夫人廣州金
氏墓合兆

字明生墓高城郡
巨津面大垈里防
築洞入杆城
配廣州金氏墓合兆

成均進士墓先考
墓階下有碣
配淑人安東金氏墓
合兆

子永麟
主簿公
配光州金氏墓龍仁
松谷

子永柱
永安府使
配貞夫人義城金氏
移于北青子孫
居

子永琇
從子下居楚山墓
東面章吐里
配平山申氏墓合兆

子秸
啓仁君
配 墓北青
郡德城봉수洞甲
卯坐雙墳

子宗美
通訓大夫行敦寧府
承
配貞夫人全州李氏
墓楊州瓦阜面月
文里文介谷同兆

子宗明
禦侮將軍墓北青老
德北上碧鳥洞甲坐

子宗盛

子永瑞
字錫類號希賢堂
官校理平原府院君
墓豊德
配貞敬夫人廣州安
氏墓同原
配貞敬夫人上黨韓
氏墓文介谷異兆

子永東
世宗朝成均進士長
端府使崇祿大夫
工曹叅判

子孝孫

子文孫

子遠景

子瑜

子科
配司直常侍公
子原道

安邊府使
子宗直
墓考墓靑龍內甲坐
子環
字白瑨官至司憲府執義
配淑人延日鄭氏
子壽莊
臨坡縣令
子廣平

子永作
墓安邊衛益面東里家後麓卯坐
配坡平尹氏墓合兆
子得淸
子允迪
字聖心官至禮曹叅判全羅觀察使
配貞夫人南原徐氏
子仁卿
和州郡事譜云郡守
子德恩

子宏
高麗朝奉翊大夫軍

恭愍王朝平章事
子晟
宣授宣武將軍管軍

子遵道
子達漢
奉翊大夫安州牧使

配
子梃
成均試生員
子森
子雅
宣節將軍平壤道右

墓伊川東面回山國祀堂現
始入伊川
子永錫
墓伊川鶴鳳面星湖里炭유洞子坐附
子允錫
將士郎
配安東金氏墓伊川청포리合兆
子承錫
配安東權氏
子德生
子苞
江界義州敎授

子肅
衛長史魯山府院
君
配突山郡夫人鄭氏

簿判書中朝拜大
都督
子元
官校理

萬戶
子特仁
官禁衛郎中

配彥陽金氏
子致
官副司成移于北青
配淑人昌原玄氏墓
北青小陽化昌上
里寺洞子坐有碣

翼江西管軍千戶
配崔氏
子貴孫
丞訓郎
配順興安氏墓上同
乾坐有碣

配星州玄氏
子茂昌
宣教郎墓大陽化初
里大尾泥乾坐有
碣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 永祥 (十八世)
  - 萱 司直公
  - 莞 司勇公
    - 建載
    - 漢必 水使公
  - 薇 僉正公
  - 芝 靖肅公
    - 世卿
      - 希說
        - 千載
          - 擘
            - 敬祖
              - 天民
                - 進善
        - 千年
          - 伯蘭
            - 天鵬
              - 自榮
                - 胤尙
                - 弼尙
                - 益尙
                - 海尙
              - 自顯
                - 克尙
                - 俊尙
                - 文尙
              - 自達
                - 命尙
                - 元尙
                - 寅尙
              - 自進
                - 道尙

自弘—敏尚
自弘—格尚
自柱—東尚
自柱—廷尚
自柱—春尚

天鵾—自華—時亨
天鵾—自華—時昌
天鵾—自潑—俊淑
天鵾—自潑—俊根
天鵾—自泰—義淑
天鵾—自茂—俊弼
天鵾—自茂—俊亨

天翔—自立—進洛
天翔—自立—進承
天翔—自立—進誠
天翔—自立—進英
天翔—自芳—進輝
天翔—自善—進義

進亨
進賢

自興—進海
自寬—進謙
自寬—垣
自益—進成
自萬—進善

伯蓍—舜連—世蕃—仁龍
伯芶

千歲—德根—望河—起俊—武仁
千歲—德根—望河—起俊—碩

千壽—仁恕—藎忠—春榮—俊昌
千壽—仁恕—藎忠—春榮—益昌
千壽—仁恕—藎忠—芳榮—俊謙
千壽—仁恕—藎忠—芳榮—俊遠

希奭—仁孫—廷檜—宗男—益敬—世胤
希奭—仁孫—廷檜—夢男—敏敬
希奭—仁孫—廷栢—植—勢立—正南

- 義孫
- 禮孫
  - 樂善
    - 叢—盛昌
    - 薺—英昌
  - 克善—華—殷昌
  - 得善—安—條昌

- 崇立
- 仲立—承胤
- 宗立
  - 正胤
  - 斗胤
- 明盛—正彬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